

## 중소·벤처기업, 영문 해외 특허문서 이제는 한글로 본다

본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중복 기술개발 및 국제적인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허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문서에 대한 번역시스템을 구축, 기업에 제공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선진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발하는 중복개발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선진기업과의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휘말리거나 중복 개발된 기술로 인하여 산업에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몇몇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 특허전담부서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특허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센터의 설립과 함께 중점사업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필요성 교육실시와 동시에 그 동안 100여개 기업에 특허검색 ID를 부여하여 해외특허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금번, 특허지원센터에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는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음성·언어정보연구부에서 개발한 영한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을 기술 이전받은 EC 글로벌에서 구축했으며, 2006년 2월 말까지 시범 서비스와 함께 번역패턴 최적화 시스템을 운영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이 특허 영한 번역엔진은 기술전문용어 약 300만 단어가 국제특허분류(IPC)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특허검색 ID를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특허검색전문사이트(WIPS)의 검색결과에 대한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분야 뿐만 아니라 화학,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번역패턴이 최적화되면 최고 80%의 번역율 실현이 가능하다.

특허지원센터는 일정비용을 지불한 기존의 100여개 특허검색 ID 신청기업 이외에 이번 시스템 구축과 함께 추가적으로 50개 기업에 한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실시간 영한 번역 서비스가 가능한 ID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접수중에 있다.

특허지원센터는 동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각 해당 업계, 협의체별로 해외 경쟁업체에 대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능동적으로 구성,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지재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국 지재권 침해소송 및 ITC 소송전략 세미나 및 Consulting

국가간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분쟁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지원하에 미국의 Top Law Firm인 Mayer, Brown, Rowe & Maw의 지적재산권 소송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미국 지적재산권 소송과 ITC소송의 일반절차 및 대응전략을 한국의 기업체들에게 소개하고자 본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할 계획이다.

## ▶ 행사개요

- 행사명 : "미국 지재권 침해소송 및 ITC 소송전략" 세미나 및 Consulting
- 세미나 일시 : 2006년 3월 22일 (수) 오후 1시30분 ~ 5시
- 세미나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 (서울 삼성동)
- 주최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Mayer, Brown, Rowe & Maw LLP, Kim & Chang 법률사무소
- 후원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문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희원 과장 (hwkim@cosar.or.kr)  
Tel) 02-570-5281 / Fax) 02-579-2597

2006년 주요 대기업, 전자부품 26조 643억원 구매 예정

본회가 대·중소기업 협력증대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Set업체의 2006년 전자부품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금년의 구매액은 전년대비 4% 증가한 26조 64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내자구매(국산부품)가 61.8%인 16조1,079억원이고, 외자구매는 9조 9,564억원인 38.2%를 기록하여 해마다 국산 전자부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시판은 10조 4,719억원으로 10.5%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이트로닉스, 삼보컴퓨터 등 주요 5개사의 2006년도 전자기기 생산, 판매계획과 전자부품 구매계획이 포함되어, 주요업체와 공급업체간의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제품별로는 휴대폰 부품이 16조 757억원으로 전체 품

목 가운데 약 61.7% 비중으로 가장 많으며, TV(디지털 TV 포함)가 3조 6,719억원, PC가 1조 3,500억원 등으로 디지털정보기전 제품의 부품 구매규모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그동안 주요 부품의 꾸준한 국산화 노력으로 내자구매가 62.1%로 예상되어 실제 국산화율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업체별 부품 구매계획을 보면 삼성전자가 14조 4,727억원이며, 이어서 LG전자 9조 6,926억원, 삼보컴퓨터가 3,720억원, 이트로닉스가 622억원을 구매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진흥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내 전자부품 관련업체는 물론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2월23일(목) 14:00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요 전자업체의 구매부서장이 자사의 계획을 직접 소개하는 전자부품 구매계획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2006년도 전자산업 환경경영 교육 안내

EU의 WEEE시행(2005.8.13) 및 RoHS시행예정(2006.7.1),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의무지침 발효(2005.8.11) 등 환경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우리업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 및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전자산업의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친환경 경영체제의 구축으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어 우리업체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과 친환경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바, 이에 본회에서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주요 지역별 환경 경영 순회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 제3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개 역	일 차	장 소	배 교
서울	4. 6(목)	산업기술시험원	서울 구로
안산	4. 11(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서부
구미	4. 14(금)	상공회의소	
광주	4. 21(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원	4. 28(금)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 동부

교육 내용

시 간	내 용	연 세
14:00~14:30	· 환경규제 대응의 정부 정책방향	산업자원부
14:30~15:20	· 최근의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 RoHS/WEEE자국법현황, EUP대응전개방향 - 환경성과평가(EPE), 환경보고서 등	건국대
15:20~16:10	· 유해물질 관리 방법 - RoHS시행대비 부품업체의 세부 실천사항	삼성전기
16:10~16:40	· 제품정보시스템 소개 - 유해물질 Free DB 소개 및 시연	에코시안
16:40~17:30	· Set기업의 환경경영	삼성전자, LG전자
17:30~18:00	· 질의/응답	